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제의에 의하여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가방위사업전반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문제들이 토의되었으며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지난 3년간 대내외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혹했지만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과 도덕의리를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며 순결한 량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당과 혁명을 보위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번 확대회의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앞으로의 군건설방향을 명확히 규정하며 선군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가 올해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기세차게 울림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을 대정치축전으로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어 지난해 인민군대사업정형을 분석총화하



시고 올해 인민군대의 투쟁방향을 제시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해 인민군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업무를 끝까지 완성하려는 인민군장병들의 신념과 의지가 보다 굳건해지고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과 전투력이 비상이 강화되었으며 후방사업도 대가 튼튼히 꾸려져 군인생활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하시었다.

특히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강성국가건설사에 길이 빛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린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속하여 지난해 인민군대사업에서 나타난 편향들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국가방위의 책임적인 임무를 맡고있는 인민군대

가 항구적으로 들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의 군건설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우리 혁명무력의 최강의 무기인 사상의 힘, 도덕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최우선적인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혁명군대의 첫째가는 위력은 사상과 도덕의 위력이며 백두산총대의 승리의 전통은 적들의 《무기만능론》을 사상만능론으로 타당한 전통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우월성을 우리 인민군대의 제일무기로 틀어쥐고 적들과의 대결에서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압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에 인민군대에서 싸움준비를 완성하는데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이를 위하여 인민군대의 기구체계를 정간화하며 임의의 시각에 최고사령부의 전략적기도를 실현할수 있게 기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날 우리 인민군대가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싸움준비를 완성하기 위

한 총돌격전을 벌려 군력강화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대가 적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대응할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미제와 반드시 치르게 될 전쟁수행방식과 그에 따르는 작전술적문제들을 밝혀주시고 인민군대의 정치, 군사, 후방, 보위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전시환경에 접근시켜 진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혁명의 시계초침은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를 따라 돌고있고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는 곧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맨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 온 나라가 인민군대의 공격속도에 발맞추어나감으로써 백두산대국의 부림없는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섬화력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을 조직지도하시였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며 적들이 우리의 신성한 령해, 령공, 령토에 단 한점의 불찌라도 떨어뜨리면 다시는 선불질을 못하게, 다시는 우리 조국강토를 넘겨다보지 못하게 원수들의 아성을 통채로 불바다로 만들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일당백장병들의 멸적의 의지가 용암마냥 타번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섬화력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연습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지휘관들이 연습을 참관하였다.

연습에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무도영웅방어대, 장재도 방어중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제4군단관하 포병부대, 구분대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감시소에서 조선인민군 제4군단장으로부터 《적》들의 도발책동에 대처한 결심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연습개시명령을 주시였다.

우리의 수역에 무모한 포탄을 쏘아댄 《적》들에게 위압적인 경고사격을 진행한데 이어 발악적으로 대응해나오는 《적》들의 섬에 강력한 화력타격이 들썩워졌다.



천지를 진감하며 노호하는 포성과 함께 대기를 헤가르며 번개같이 날오는 포탄들과 반함선로케트가 《적》들이 차지하고있는 섬에 툭툭처럼 돌아오는 포위 치발견용탐지기, 포병 및 유도무기진지들, 지원함선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하였으며 되살아난 포병중대, 전파탐지기, 통신감청소, 지휘소, 유생력량과 땅크, 전진기지들을 무자비하게 답사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포병들이 목표들을 타격할 때마다 정말 잘한다고, 집중성이 아주 좋다고, 저렇게 같으면 적들

이 도사린 섬이 아예 없어지겠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훈련은 적들이 감히 움쩍하기만 한다면 무자비한 화력타격으로 적진을 벌초해버릴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투명령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준비된 조선인민군 서남전선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연습이 끝난 다음 훈련결과를 총화해주시고 포병화력구분대들에서 극복해야 할 결함들을 지적하시였으며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게 주체적포병전법을 더욱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적들이 등지를 틀고있는 섬들의 대상물들에 대한 타격 순차와 진압밀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주었는데 오늘 진행한 연습을 통하여 서남전선을 지키고있는 제4군단관하 포병들이 적들을 불도가니에 처넣을수 있게 준비되어있음을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인민군대에서는 훈련에서 형식주의를 완전히 뿌리뽑으며 현대전에서 제기될수 있는 여러가지 정황들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현실적인 훈련들을 많이 진행하여 최고사령관이 언제 어떤 정황을 주고 명령을 주어도 즉시에 전투에 진입하여 임무를 수행할수 있게 항상 준비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전군에 백두산훈련열풍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여 모든 군인들을 펄펄 나는 일당백싸움군, 백두산호랑이로 준비시키고 모든 부대들을 강철의 근위부대로 만듦으로써 일단 적들이 덤벼들면 미처 정신을 차릴새없이 놈들을 목사발만들고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지휘관들에게 현재 진행한 공사량은 얼마인가, 자재보장대책은 어떻게 세워져있는가, 결린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일일이 물어주시고 과학기술전당조감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963구분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

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본보기답게 창조적지혜를 합쳐 공사를 다그칠수 있는 혁신적인 공법을 창안 도입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과학기술발전은 강성국가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사이며 나라의 전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것만큼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전당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



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선물인 과학기술전당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현지에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한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과학기술전당의 형성안이 잘되었으며 명당자리에 일떠서고있다고 거듭 만족하시면서 축섭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희한한 건

축물을 일떠세워 평양시의 면모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하며 과학의 힘으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조선의 결심을 온 세상에 다시금 보여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과학기술전당건설을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까지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맡겨진 공사를 계획대로 밀고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최후 승리를 부르는 판문점의 메아리

조선지도우에서 보면 판문점은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민족의 최대수원인 조국통일의 장엄한 퇴성이 오늘도 메아리치는 뜻깊은 곳이어서 지금 온 겨레는 여기 판문점으로 이목을 집중하고있다.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매달리는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라는 공화국의 립장을 외면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오늘도 또다시 조선반도에 침략적인 전쟁연습의 포성을 울리려고 획책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최대열점지대인 여기 판문점을 시찰하신 그날에도 지적에 보이는 남조선에서는 당장이라도 실전으로 화할수 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벌어지고있었다.

전쟁이나 평화나, 분렬이나 통일이나 하는 력사의 분기점에 조선반도와 민족의 운명이 놓여있었다.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해보려고 전쟁광신자들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던 침에 한 정세속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최전방중의 최전방인 판문점을 시찰하시었던것이다.

반세기를 훨씬 넘는 민족분렬의 고통과 울분이 응축되어 있고 통일을 위한 겨레의 몸부림이 어느 한순간도 그칠새 없는 여기 판문점은 작아간의 팽팽한 눈길이 마주치고 목소리까지 들려오는 곳에 쌍방이 총부리를 마주대고있는 시한탄같은 열점지대이다.

더우기 무모한 전쟁연습의 폭음이 지적에 울리고 어느순간에 불구름이 덮쳐들지 가늠하기 어려운 살벌하기 그지없는 이 최전방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인대담한 모습으로 나서시었다.

그이께서 최고사령관으로서 령도의 첫 시기 평화적인 국경선도 아닌 최대열점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에 현지시찰의



판문점을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제 101(2012)년 3월

자욱을 찍으신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천출명장의 확고한 결심과 철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신 력사적사변으로서 조국통일대전에 펼쳐나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고 반공화국적대세력들에게는 종국적멸망을 선고한 일대 장거였다.

격전전야를 방불케 하는 살벌한 판문점에서 밝은 대낮에 판문각로대에까지 나서시여 쌍안경으로 남녘의 산야를 바라보시며 적정을 료해하시는 그이의 안광에서는 천만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단매에 처갈 기고 민족의 머리에 드리운 전쟁의 불구름을 성스러운 조국통일대전의 승리의 불보라로

만드시려는 령장의 담력과 의지가 뿜어져나왔다.

이미 반세기전에 조선반도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미국이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정전담판회의장과 정전협정조인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시었다.

적대세력의 간담을 서늘케 한 그 선언은 판문점의 하늘가를 썩썩 울리며 침략자들이 도사린 남녘의 하늘가로 퇴성쳐 울려갔다.

령장의 그 퇴성을 가슴마다에 격멸의 의지로 만장약하며 그이를 성벽마냥 옹위해나서는 전초병들과 팔을 끼고 어

개를 걸고 원수님께서 판문점 한복판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앞에서 기념사진도 찍으시었다.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원수들에게 종국적 멸망을 선언하시며 적진과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곳에 거연히 나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두산담력, 백두산의 기질앞에 호전세력은 몸서리치게 전물하시었다.

하기에 당시 남조선의 한 언론은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보란듯이 대낮에 판문점을 시찰하시여 쌍안경으로 군사분계선과 분단의 현장을 한참동안 둘러보시었다. 한동안 벌어진 입을 다물수가 없었다. 도대체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배심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

지 감히 추리하기를 포기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라고 전하였다.

그날의 판문점시찰의 길은 그후 무도와 장재도, 월내도를 비롯한 최전방 섬초소들과 오성산의 까칠봉을 비롯한 최전연지역들로 끝없이 이어졌다.

바로 그 나날 원수님께서 판문점에 올리신 통일의 퇴성을 메아리로 울리시며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을 담아 원수들의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맞설것이라고 거듭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서리발같은 선언은 오직 민족의 수호자, 절세의 애국자만이 내리실수 있는 단호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나라와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기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이 땅에 튀기는것을 허용할수 없고 겨레에 대한 사랑이 불같이 영원한 평화와 통일을 주고싶으신 그이이시다.

원수님께서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제거를 위해 대규모 전쟁연습을 그만둘데 대한 공화국의 호소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울해에 들어와서도 전쟁연습소동에 계속 미친듯이 매달리는 내외호전세력에게 단호한 징벌을 가하시려고 인민군부대들의 훈련을 련이어 조직지도하시었다.

그이의 조직지도밑에 최근에 진행된 비행사들의 전투비행훈련,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 섬화력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 등은 평화의 원수들이 감히 군사적도발과 전쟁의 길로 나온다면 백두산혁명강군은 그 어디에도 구속됨이 없이, 그 무슨 경고나 사전통보도 없이 필요한 시기에 임의의 대상에 대한 무자비한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하게끔 만단의 준비를 갖춘 인민군대의 위용과 단호한 의지를 널리 파시하시었다.

군사훈련의 나날 모든 군인들을 뿔뿔 나날 일당백싸움군, 백두산호랑이로 준비시키고 모든 부대들을 강철의 군위부대로 만듬으로써 일단 적들이 덤벼들면 미처 정신을 차릴새없이 놈들을 목사발만들고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해야 한다고 하신 원수님이시다.

백두산의 칼바람정신을 지니신 선군령장의 결심은 단호하고 타격은 무자비하다. 일단 결심하면 벼락같은 타격전으로 백승을 펼치시는 공격형의 령장을 모셔 오늘 인민군대는 최대로 강해지고 적대세력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있다.

3년전에 울린 판문점의 퇴성은 반미대결전과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부르는 메아리로 오늘도 끝없이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 || 령장의 결심과 의지 ||

### 빈 말 이 아니 다

저공으로 래습하는 《적》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망순항미싸일에 자행고사로 케트가 사격을 가하고 상공에 적의 《토마호크》 순항미싸일로 가상한 목표가 날아들었을 때에는 번개같은 불줄기가 날아가 목표물을 단방에 박산냈다.

두해전 3월 어느날에 있는 《적》 순항미싸일을 소멸하는 자행고사로케트 사격훈련의 장면이다.

그날 훈련을 지도하시며 타격수단들의 명중성과 성능을 높이 평가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적들이 우리 군대

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망각하고 감히 움쩍하기만 한다면 남반부작전지대의 군사대상물들과 통치기관들은 물론 미국의 반공화국침략전쟁책동에 편승하는 추종국가의 관련시설들과 래평양작전지대의 미제침략군기지들까지 초토화할데 대한 명령을 주겠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말로 하던 때에 지났다, 이제 당장이라도 싸움이 벌어지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리라고 하시었다.

### 자기 힘이 강해야 한다

두해전 7월에 있는 인민군대의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전술로케트발사훈련때였다. 해당부대들의 실전능력판정검열을 목적으로 불의적인 기동과 화력타격을 배합하여 진행된 훈련에서는

전술로케트들의 명중성이 확증되었고 긴급정황시 부대들의 전투행동질서와 화력임무가 정확히 규정되고 각이한 타격대상물에 따르는 사격방법이 완성되게 되었다. 그날 훈련을 지도하시며

전략군의 싸움준비와 로케트전법을 적용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 준비되어있어야 한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강자들의 흥정물로 되고 피로써 이어온 귀중한 력사

###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세해전 8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선서부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을 시찰하시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울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면서 연평도에 각종 무기들을 증강배비하며 긴장을 격화시키고있는 그 무렵 섬방어대의 싸움준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그곳을 찾으신 원수님께서 방어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다져 적들의 어떤 불의의 침공도 제

도 한순간에 빛을 잃게 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실전훈련을 통하여 싸움준비를 더욱 강화하며 즉각적인 발사태세를 유지하여 적들의 무분별한 대결광풍을 강력한 군사적억제력으로 제압하도록 할데 대해 강조하시었다.

에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하시었다.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이나 지역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으로 이어가라고, 만약 침략자들이 전쟁을 강요한다면 서해를 적들의 최후무덤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시었다. 섬멸적반타격으로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단호한 결심이고 의지였다.

본사기자

3월은 봄의 계절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년원 어린 판문점에도 3월의 봄이 오고있다.

3년전 3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판문점을 찾으시었다.

최대의 열점지대에 위치했것으로 하여 위험천만하기 그지없고 더우기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벌리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당장이라도 침략전쟁의 총포성이 울릴것같은 최전방의 판문점을 시찰하시었다.

그날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비의 글발을 한자, 한자 주의깊게 바라보시면서 어버이장군님께서 판문점에 무려 4차례나 나오시었다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친필비를 모시도록 하였다고 하시었다.

그날 판문각로대우에 서 남녘의 산야를 오래

의 동포들, 장군님 한시도 멈추신적 없는 통일애국의 발걸음, 그 절절한 념원과 간곡한 유훈을 받들어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고 밝아온 이해의 아침에는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었다.

우리 민족이 통일되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침략적인 외세는 이 시각에도 북남

## 판문점의 봄

판문점의 그 봄날.

차거운 랭기만이 서려있는 판문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통일의 봄빛을 안고 오신것이였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원수님께서 어느 한때도 통일에 대한 생각을 잊으신적이 없었다. 야 전용승용차를 달리시면 서도 통일을 생각하시었고 인민의 행복이 넘칠 회한한 창조물들을 보시면서도 남녘의 겨레를 생 각하시었다. 수령님 언제나 한번 잊으신적 없는 남

관계개선을 악랄하게 방해하며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려 하고있다. 그러나 백두산의 칼바람정신을 지니신 천출위인이 계셔 미국의 반통일 전쟁광풍은 맥을 추지 못하고 이 땅의 자주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말것이다.

절세위인의 통일의지가 맥박치는 판문점의 봄은 머지않아 도래할 통일의 봄을 예고해주고있다.

김 연 희



# 가장 젊으신 리상형의 지도자

3년전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시었을 때 세계가 놀라와한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백두혈통의 계승이었고 새로 정치의 전면에서 나선 김정은령도자가 상상밖으로 너무도 젊으신분이시라는것이였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고 나라마다 국가수반, 정부수반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젊으신분이 김정은령도자이시다.

세계적으로 가장 젊으신 지도자, 그것이 가지는 의미, 조선과 세계의 정치발전에 미칠 영향은 과연 어떠한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언급해야 할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가장 젊으신면서도 가장 뛰어난 령도력을 지닌 지도자이시라는것이다.

원래 정치인의 능력은 정치년한에 비례한다는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견해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정치계에 오래 몸담을수록 보는 눈이 높아지고 경험도 많아지고 정치수완도 늘기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원수님의 정치를 보면 이 말이 무색해진다. 정치년론은 오래지 않지만 하시는 일들은 놀라움을 넘어 매혹을 금할수 없게 한다.

원수님의 정치는 아주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이다. 모든 분야에 막힘이 없는 다면박식하고 뛰어난 정치이다. 문무에 도통하고 일상천리로 풀어나가는 리상형의 정치이다.

리론과 실천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보기 드문 정치이다. 인민사랑으로 일관되고 세상

을 놀래우는 창조와 변혁의 정치이다.

전국, 전군, 전민을 이끄는 장악력과 통솔력이 뛰어난 정치이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치는 벌써 조선반도의 지경을 넘어 세계의 각광을 모으고있다. 조선에서 뿜어져나오는 김정은령도자의 힘은 세계에 뻗치며 세계 《초대국》이라 하는 미국도 뒤흔들여 놓고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젊으신 지도자가 갖는 다른 하나의 의미는 나라가 더욱 젊어지고 혈기왕성해져 힘차게 전진하게 되었다는것이다.

나라는 력사가 오를수록 좋지만 그 활동은 젊어야 좋다. 그래야 청춘의 활력으로 기세 좋게 나아갈수 있다.

나라의 젊음은 정치의 젊음과 련관되어있다. 공화국은 근 70성상을 헤아리는 자기 력사에서 가장 활력에 넘친 청춘기를 구가하고 있다.

젊음은 새것이고 부단한 변화이다. 김정은시대에 이 땅에서는 놀랄만 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성, 중앙기관, 공장, 기업소, 단체, 협동농장들에서는 젊고 실력있는 일꾼들이 두각을 나타내고있다.

지난 전쟁시기 인민군대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무찌를수 있는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젊고 지휘능력이 뛰어난 항일투사들이 인민군대의 대대, 연대, 사단을 이끌고 대오의 진격로로 앞장에서 열었기때문이다.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가 새로운 시대구호로 되고있는 공화국에서 어느 일꾼이나 로쇠와 침체에서 벗어나 청춘의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고 집단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고있다.

젊은 속도이다. 오늘 공화국은 세상을 놀래운 천리마의 속도, 평양속도, 80년대속도, 최첨속도를 통과하는 새로운 조선속도로 내달리고있다.

인민을 위한 회한한 건축물도 몇년이나 아니라 보통 수개월에 완공된다.

창천거리, 룡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은하과학거리, 위성과학자주력지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번개같이 일떠서는 그 대상들을 쫓아다니는 젊은이들. 지금 속도로 나아가면 공화국은 몇년여간에 세계의 발전된 수준에 올라설것이다. 그것은 령도자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기도 하다.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머지않은 눈앞의 조선의 새 모습이다.

젊음은 힘이고 담력이고 배짱이다. 김정은시대에 조선의 힘은 최대로 강해졌다. 일심단결, 혼연일체로 표현되는 령도자와

경제개발구들이 도처에 정

해지고 경제관리, 기업경영관리에서도 혁신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분배되는 기업경영관리로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이 더욱 높아지고 포전담당책임제의 실시로 농업생산에서도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김정은시대에 조선은 이렇게 변하며 무섭게 속구치고 있다.

젊음은 속도이다. 오늘 공화국은 세상을 놀래운 천리마의 속도, 평양속도, 80년대속도, 최첨속도를 통과하는 새로운 조선속도로 내달리고있다.

인민을 위한 회한한 건축물도 몇년이나 아니라 보통 수개월에 완공된다.

창천거리, 룡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은하과학거리, 위성과학자주력지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번개같이 일떠서는 그 대상들을 쫓아다니는 젊은이들. 지금 속도로 나아가면 공화국은 몇년여간에 세계의 발전된 수준에 올라설것이다. 그것은 령도자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기도 하다.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머지않은 눈앞의 조선의 새 모습이다.

젊음은 힘이고 담력이고 배짱이다. 김정은시대에 조선의 힘은 최대로 강해졌다. 일심단결, 혼연일체로 표현되는 령도자와

군민의 하나로 뭉친 힘이 력사상 가장 강해지고 군력은 최정에강군화의 구호밑에 다져질대로 다져졌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증산의 동음이 어디서나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젊음은 두려운것을 모른다. 조선의 담력과 배짱은 저 백두산의 메부리처럼 더욱 억세지고 강해졌다.

미국이 조선에 대한 《붕괴》압살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최후발악을 하고있는 지금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선언이 있다.

우리는 미제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해줄수 있으며 상용무력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되어있다. 미제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율, 쓰디쓴 참패를 우리와의 전쟁을 통하여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하자.

... 제국주의 미국을 중국적으로 파멸시킬 단호한 결심을 내리시고 조선식의 필승의 전법을 완성하신 세계에 전무후무한 불세출의 령장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세계적으로 가장 젊으신 지도자, 그것이 갖는 력사적의미는 또한 공화국의 미래, 민족의 미래가 밝고 무궁창창해졌다는것이다.

모두가 보고 느끼고 감동하는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조선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위인이시다. 그의 비범한 령도력, 인민

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것이 정치에 구현되어 펼쳐지는 놀라운 현실, 그것은 보통의 지도자가 아니라 뛰어난 지도자이고 한 나라의 령도자를 넘어 세계적인 위인의 모습으로 공화국남너로소의 가슴마다에 확고히 새겨졌다.

지금 조선의 젊음은 미래에로 끝없이 펼쳐져있다. 조선은 십년, 백년, 천년이 가도 흔들리지 않으며 김정은조선의 강성부흥의 력사는 끝없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최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면서 우리 혁명의 시계초침은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를 따라 돌고있고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는 곧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맨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 온 나라가 인민군대의 공격속도에 발맞추어나감으로써 백두산대국의 부림없는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에서 그이의 구상과 결심은 곧 실천으로 되고있다. 그이께서 결심하시여 못해낸일이 없다.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들고 한다면 반드시 해내는 령도자의 탁월한 지도밑에 조선이 천하제일강국의 용자를 드러낼 그날은 멀지 않았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올해에 북남관계에서도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때 대한 대담하고 파격적이며 통근 제안과 중대립장을 표명하시였다. 민족이 일구워야 할바라는 조선의 자주통일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를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 김정일장군의 인간적 품모

만인을 매혹시킨 뜨거운 인정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한없이 고결한 인정미를 지니신분이시였다.

인정미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과 도의심이 라고 말할수 있다.

장군님께서 녀병사들이 지켜선 해안포중대를 찾으셨을 때 남기신 사랑의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생생하다.

그때 병사들의 군무생활의 구성구석을 보살피신 장군님께서서는 병사들의 더갈라진 손을 눈여겨보시고 마음에 걸리시여 후날 그들에게 약크림을 보내주도록 다심한 정을 기울이셨다. 누구나 초소를 지키던 녀병사들의 썩썩한 모습은 보면서는 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아버지장군님께서만은 바다바람에 뜬 녀병사들의 손을 무심히 스쳐보지 않으신것이다. 녀병사 한 명한명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생각하신 다심한분이시였기때문이다.

누구보다 인정이 많으신분이시기에 비가 많이 와도 북녘의 인민들만이 아니라 남녘의 인민들도 걱정하시며 수많은 수재민이 생겼을 때에는 선참으로, 그것도 세계가 놀랄 엄청난 액수의 구호물자를 보내주도록 하시였던것이다.

장군님께서 지니신 뜨거운 인정미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 연회장에서 김대중대통령의 부인 리희호가 주락이 아닌 일반락에 앉은것을

보시고 부부가 서로 갈라앉아 《리산가족》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고 유모아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를 자신의 옆좌석에 불러주신 감동깊은 일화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그때 남측의 성원들은 한없이 사려깊으시고 인정깊으신 장군님의 인품에 매혹되어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평양에 왔던 남측의 인사들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추석을 맞으며 남조선사람들이 민족의 향취를 느끼게 하고 북녘의 정도 전하게 해야 한다시며 많은 량의 송이버섯을 보내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인정미에 남녘의 동포들은 눈물을 적시였었다.

공화국을 방문한 로씨야의 한 무용단 단장이 자기를 위해 력사의 갈피에 파묻혀 먼지만 울랐던 예술영화를 상영하도록 하신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에 목이 메여 감격을 더친 이야기기도 있다.

정녕 장군님께서 지니신 뜨거운 인정미는 만사람을 매혹시키는것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보온 로씨야의 안드레예바도 《나는 그이를 만나보오면 비울수록 그이의 숭고한 사상과 인자한 품모, 뜨거운 인정미에 매혹되어 가슴이 뚫어번지는것을 진정할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 누구에게도 말한적이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속생각을 솔직히 터놓는다. 나는 김정일장군님께 정신적으로 매혹되다 못해 이제는 인간적으로도 완전히 반하고말았다. 것처럼 위대하고 자애롭고 인정깊으신 절세의 위인을 심장을 다 바쳐 흠모하고 따른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고 감동을 퍼력하였던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언제인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희귀한 닭 한마리를 보게 되신 일이 있었다. 그 닭이 1년에 알을 80알 정도 낳는 관상용닭이라는것을 알게 되신 그이께서는 자못 서운해하시며 닭이야 알을 많이 낳아야지 보거나 좋아서 무얼 하겠는가고, 자신께서는 아무리 보기 싫게 생겨도 알을 많이 낳는 닭이 있으면 매일 보러 나오겠다고 하시였다.

**숭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쳐며**

### 닭 한마리를 보시고도

나는 1년에 알을 한 400알 낳는 닭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알을 공급할게 아니겠는가고 하시는 그이의 심중에는

닭 한마리를 보시면서도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시는 웅심 깊은 사랑이 가득차있었다.

본사기자

**단상**

## 백두산호랑이가 《따웅—》

지난 광명성절을 맞으며 량강도 삼지연군에서 얼음 조각축전이 진행될 때 류달리 사람들의 눈길을 모은것은 《백두산의 호랑이》 조각이었다. 위엄있는 몸체에 앞발을 쳐들고 금시라도 《따웅—》하며 맛따든 적수를 단숨에 삼킬듯 한 기세는 호랑이의 실물을 련상케 하고있었다. 발산하는 조명빛에 의해 두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고있었다. 오래전부터 백두산호랑이는 우리 민족에게 용맹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맹수에서 제일가는 백두산호랑이가 우리 겨레에게 더욱 숭상의 대상으로 된것은 아버지수령님께서 백두밀림에서 항일대전의 총성을 높이 울리신 그때로부터였다. 그래서 해방직후 시인 조기천은 서사시 《백두산》에서 총대로 일제를 쳐물리치고 조국해방성업을 이룩하신 수령님을 칭송하여 백두산호랑이로 격찬했던것이다. 백두산호랑이는 백두산대국의 자주, 자립, 자조선의 역센 기상과 슬기와 용맹을 상징하고있다. 천년바위우에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의 쓰디쓴 교훈을 망각하지 않을 치받으며 우뚝 서있는 백두산호랑이의 위용스러운 모양을 보면 백두산대국의 자주와 존엄의 기상을 보는것 같고 눈을 부릅뜨고 앞발을 쳐들고있는 용맹스러운 자태는

자기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려는 적대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치 않고 단호한 징벌을 가하는 조선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의 기질을 체현한듯싶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백두산호랑이를 사랑하고 숭상한다. 백두산호랑이를 닮은 선군조선의 단호한 기상과 무쇠같은 주먹에 의해 미국이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다가 패전의 수치스러운 몰골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되였고 전후의 폐허에서 전설속의 천리마가 날아오르고 자주, 자립, 자조선의 역센 기상과 슬기와 용맹을 상징하고있다. 천년바위우에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의 쓰디쓴 교훈을 망각하지 않을 치받으며 우뚝 서있는 백두산호랑이의 위용스러운 모양을 보면 백두산대국의 자주와 존엄의 기상을 보는것 같고 눈을 부릅뜨고 앞발을 쳐들고있는 용맹스러운 자태는

김철진





#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발동하여

얼마전 우리는 천지운 활유공장을 찾아 취재길에 올랐다. 시원하게 뻗어나간 공장구내길을 따라 운활유생산현장에 들어서니 수많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이 눈부리게 모자라게 펼쳐져 있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 공장기사는 우리에게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

##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가 실현된 천지운 활유 공장

공정이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우리는 기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의 전방사령부라고 불리는 통합생산지령실에 들었다. 《최첨단을 돌파하라!》

라는 구호를 써붙인 지령실에서는 생산현장감시체계, 그리스생산공정, 운활유생산공정, 전력망감시체계 등이 그쯘히 갖추어져 있었다. 이곳에서는 감시장치들과 한소편컴퓨터, 조종프

로그램에 의거하여 생산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조종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자화된 생산지령을 개별적생산공정들을 담당 한 지령실들에 떨어주어 주고 말단설비들에까지 수자화된 조종 및 조작체계가 훌륭히 맞물리도록 하고 있었다. 운활유생산공정만 놓고 보아도 원료투입, 배합, 포장 등 모든 공정들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다. 조종실의 컴퓨터에 원료 투입량, 첨가제배합비율

등 필요한 자료들을 입력하고 지령만 주면 생산현장에 사람이 없이도 모든 작업들은 흐름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수감장치가 설치된 운활유도람자동포장기가 자동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정확한 량의 운활유를 용기에 주입하는 모습은 정말 멋있었다. 비누화공정, 조합공정, 자동포장공정 등의 생산체계에 이루어진 그리스 생산공정도 모두 자동화 되어 있었다.

실로 이 공장의 생산설비들은 수자화된 지령에 의하여 조종하게 되어 있는 설비들로서 통합생산체계의 가동을 훌륭하게 담보하고 있었다. 이어 우리는 공장의 생산을 좌우하는 핵심부서라고 말할수 있는 분석실을 찾았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분석실장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과 원료에 대한 분석이 여기에서 진행된다고, 다른 현장들과 마찬가지로 분석실도 수자화

되어있다고 웃으며 말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원자흡광스펙트럼분석기, 밀도측정기를 비롯한 이곳의 수많은 분석설비들은 수자화된 조작으로 가동하게 되어있는 것들로서 그 성능과 효율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결국 수자화된 분석과 수자화된 생산은 이 공장을 세계적수준을 자랑하는 몇몇이공장으로 만들 수 있었다.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가 실현된 천지운활유공장에서 쏟아져나오는 제품들을 흐뭇한 심정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공장을 떠났다. 본사기자 김철호



## 자력갱생으로 흥하는 일리

천리마타일공장에서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없이 타일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에 요구되는 질 좋은 타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천리마타일공장을 찾았다. 먼저 원료직장에 이르니 노동자들이 한창 발과 구멍을 뚫고 있었다. 타일과 조선키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채취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중이었다. 《타일을 팡팡 생산하자면 뿔뿔이 뚫어야 질 좋은 원료가 많아지죠.》 이곳 직장의 노동자 한 팡남은 공장가까이에 잘장되어있어 타일생산은 문제없다며 이마의 땀을 씻었다. 생산현장에서 각종 고급타일들이 쏟아져나올 때 이들의 얼굴은 보이지

### 천리마타일 공장

않다. 하지만 이들은 타일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아안았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원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들의 애국의 마음인양 대형자동차들이 타일원료를 가득 싣고 달리는 광경도 볼만 했지만 적재장에 높이 솟은 원료산은 더욱 호뭇했다. 우리는 아름다리 가스판들이 짙게 뻗어간 가스분공장에도 둘러보았다. 이전에는 액화가스생산공정이 없어 수입에 의존했었는데 그후 자체의 힘으로 무연탄에 의한 가스화를 실현하였다고 한다. 외국의 기술자들이 공장자체로 무연탄가스화를 실현할수 없다고 하였지만 집체적협과 지혜를 발휘하여 끝끝내 성공한 이들이었다. 무연탄이 발효로에 들어가 가스로 전환되어 뜨거운 열을 내며 타

일을 생산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볼만 했다. 그분이 아니었다. 가느 곳마다에서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켜 기적을 창조해내 감동깊은 사연들을 들을수 있었다. 한때 공장에서 바닥타일만을 만들던 생산공정을 외벽타일까지 생산하는 흐름선으로 개조할 계획을 세웠을 때 외국기술자들은 조선기술자들이 그것을 실현한다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장담했었다. 후날 흐름선을 타고 외벽타일뿐 아니라 십여종의 각종 타일이 줄지어 쏟아져나오는것을 본 그들은 조선의 기술자들은 한다면 반드시 해내야하는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고 한다. 공장에 꾸러진 현대적

인 후리트생산공정 하나만 더 놓고보자. 후리트라고 하면 고급미정석타일과 복합유리타일생산에 쓰이는 주원료일뿐 아니라 다른 타일생산에도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보조원료이다. 종전에는 유리알 같은 후리트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수입에 의존해왔으나 값이 비싼데다가 수송에 드는 품이 대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으로 자체로 후리트생산공정을 꾸려놓고 적은 원가로 타일생산을 늘이고 있었다. 공장을 돌아보느라 이런 확신이 갈마들었다.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천리마를 탄 기세로 전진하는 이들앞에서 적대세력들의 제재나 봉쇄같은것은 바위에 부딪친 물거품에 지나지 않을것이라는 것들. 본사기자 흥범식

### 승리건제품전시장 소장 로혜란과 나눈 대담

## 천리마타일, 이리만큼이 웅장한다

기자: 승리건제품전시장에서 봉사하고있는 천리마타일에 대한 평판이 자자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로혜란: 옳은 말이다. 우리 승리건제품전시장에서는 천리마타일을 비롯하여 가구류, 방수건재류, 합판류, 유기유리, 도장재, 벽지 등 1만 2천여점의 건제품들을 봉사하고있는데 사람들속에서 호평이 좋다. 특히 천리마타일 공장에서 생산한 타일제품들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다. 내벽타일과 외벽타일, 바닥타일, 장식타일, 대리석타일, 복합유리타일 등 전시장을

을 비롯하여 각종 고급타일들이 많이 전시되어있다. 전시장에는 외국인들도 찾아오는데 그들은 천리마타일이 모양과 문양, 색깔 등에 있어서 발전된 나라들의것보다 품질이 뛰어나다며 저마다 사가고있다. 기자: 최첨단을 향해 나아가는 공화국의 타일공업의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라고 생각한다. 로혜란: 그렇다. 풍부한 국내산 원료와 최첨단 기술에 기초한 우리의 타일공업은 오늘 세계적수준에 날로 뛰어오르고있다. 지구상에는 백여년의 타일생산력을 가진 나라들도 적지 않다. 미정석타일, 인조대리석타일, 복합유리타일 같은것은 타일공업이 제일 발전되었다고 하는 몇개 나라들에서만 만들고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천리마타일도 결코 그에 쫓가지 않는다. 우리 전시장에는 천리마타일공장에서 첨단기술을 리용하여 만든 새형의 타일들이 적지 않다. 그 가운데는 꽃문양장식타일도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 초고압물절단기로 임의의 꽃모양으로 만든 타일들은 형식이 독특하



들을 마음껏 써보고싶었던 소망이 이제야 풀리게 되었다고, 천리마를 타고 나래쳐오르는 사회주의문명국이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것 같다고 말하곤 한다. 기뻐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천리마타일을 봉사하는 자부심을 한껏 느끼곤 한다. 우리는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질 좋고 다양한 천리마타일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당도록 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더 잘해나가겠다.



합유리타일 등 전시장을 짝 채운 각종 타일제품들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그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천리마타일은 종류가 다종다양하고 색과 문양이 독특할뿐 아니라 잘깨여지지 않고 질이 높기로 유명하다. 우리 전시장에는 마치 벽돌을 차곡차곡 쌓은것 같기도 하고 묘한 돌이나 쪽덜을 맞추어 놓은것처럼 이채로운 타일들, 나무줄기나 잎, 무늬 등이 생동하게 그려져있어 손으로 만져보아야 타일이라는것을 알수 있는것





# 전민족적인 통일운동련대기구

오는 3월 4일은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6.15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된 때로부터 1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6.15공동선언이 안아온 자주통일의 거대한 열풍, 우리 민족끼리 통일합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는 속에 2005년 3월의 봄날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민족적화해와 단합,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7천만겨레의 뜨거운 통일열망과 의지를 모아 자기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언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북남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분렬이후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의 각계중 정당, 단체, 인사들을 가장 폭넓게 망라하여 결성된 전민족적 통일운동련대기구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결성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 소속과 지역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

## 6.15민족공동위원회 결성일에 즈음하여

지는 6.15통일시대의 또 하나의 사변이었다.

6.15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갈수 있는 민족대단결의 모체, 조국통일의 강력한 추동력이 마련되게 되었으며 조국통일운동은 당국과 민간이 따로없이 온 민족이 함께 하는 거족적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6.15공동선언 발표 6돐을 맞으며 진행된 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하여 북과 남의 당국과 해외의 각계층이 한덩어리가 되어 진행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은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겨레의 드립없는 의지와 애국열의를 힘있게 과시하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운동은 남조선보수당국의 집권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도전에 부딪혔으

며 북남관계는 오늘도 파국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법한 제의와 겨레의 통일지향에 한사코 역행하면서 체제대결소동,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매일같이 광분하고있다. 그런가하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통일애국세력,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파쇼탄압에 날이 갈수록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의 발악적인 동족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북남사이에는 래왕과 접촉, 대화는 커녕 대결과 전쟁의 기운만이 무겁게 감돌고있다.

지나온 북남관계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동족대결로 초래될것은 불신의 격화, 군사적충돌과 전쟁뿐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위협천만한 전쟁책

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데로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화합과 자주통일의 열기가 온 강산에 끓어안아오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6.15시대에 천지를 진감하던 통일의 그 열풍을 다시 분출시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에 천명된대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쳐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우선시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5돐, 조국해방이 혼돈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민족대단합을 더욱 강화하여 나라의 평화와 통

일마전에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는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운겨레에게 커다란 관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공동구호의 구절구절을 새길수록 통일에국의 사명감이 더욱 불타오르고 통일신심도 백배해진다.

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때만이 겨레의 가슴에 서려있는 분렬의 아픔을 씻어낼수 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겨레의 통일념원, 평화지향을 외면하고 외세와 함께 이 땅에 북침전쟁의 불구

누구든지 내외호전세력의 광기어린 북침전쟁소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하며 전쟁의 화근인 미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해내외의 각계층 동포들은 력사적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거

## 겨레를 자주통일로 부르는 애국의 호소

우리 민족이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여기에 판통되어있는 민족운명개척의 근본원칙, 근본리념인 우리 민

음을 시시각각으로 몰아오고있다. 곧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벌어질 대규모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에 핵전쟁위험이 최대로 증대될것이라는것은 너무도 뻔한 사실이다. 이 땅에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들뜨게 되는 것은 우리 민족이다. 때문에 조선민족성원이라면

족적운동에 떨쳐나서 우리 민족이 사는 모든 곳에서 자주통일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통일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갈 때 조선반도에 무겁게 드리운 대결과 분렬의 암운은 점차 가시여지게 될 것이며 자주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야 말할것이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자는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단회의》라는데서 《안보는 핵이 아닌 두통한 지갑에서 나온다.》고 했다는 맹목의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북은 경험에서 나온 이 교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고 하루속히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우를 시시각각으로 몰아오고있다. 곧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벌어질 대규모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에 핵전쟁위험이 최대로 증대될것이라는것은 너무도 뻔한 사실이다. 이 땅에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들뜨게 되는 것은 우리 민족이다. 때문에 조선민족성원이라면

공화국의 제도와 정권, 인민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다는 반증으로 되는 것이다. 자위의 핵이 있고 가장 정당한 병진로선이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은 물론 물질적재부도 날로 커가고있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안보가 불안하고 미국

적은 자금을 들여 군력은 최대로 강화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경제건설에 많은 자금을 돌리게 된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병진로선을 채택한 지난 2년어간에만도 공장, 기업소들이 더욱 현대화, 활성화되고 농업생산은 부쩍 장성하였으며 바다에는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

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이다.

온 민족은 자주통일의 기치밑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각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련대련합을 확대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이룩하려는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새 국면을 기어



이 땅위에 조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경애하는 원수님이 계시는 조국이 제일이다

중국 길림에서 사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부협회 회장인 황진생 선생이 새해를 맞으며 통일신보편집국앞으로 편지를 보내어왔다.

몸은 이역에 있어도 언제나 마음속에 조국을 안고사는 황진생선생의 지극한 애국의 마음이 자자구구에 뜨겁게 어려있는 편지를 아래에 소개한다.

중국 력사에서 영원히 빛날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2014년을 보내고 새로운 승리와 전진이 기약될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저는 해외에서 사는 우리들과 오랜 세월 애국의 한길을 걸어왔고 또 우리들에게 민족적근지와 신심을 안겨주는 《통일신보》를 더 잘 편집하려고 많은 수고를 하고있는 편집국의 모든 동지들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뜨거운 설인사를 보냅니다.

《통일신보》는 해외 우리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나라의 안전이 굳건히 수호되고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조국의 눈부신 성과들을 제때에 알려줄뿐아니라 선군정치가 있기에 조국의 평화가 있고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며 통일은 확정적이라는 신념을 가슴깊이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해외 우리들이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 충성과 효성다하며

조국의 통성변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게끔 큰 힘을 주고있습니다.

《통일신보》에 실린 조국의 기쁜 소식을 볼 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는 조국이 제일이고 대를 이어 수령님 누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감으로 가슴벅차오릅니다.

지금도 《통일신보》 2013년 12월 7일호에 실린 기사 《몸은 이역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두고》와 《그날의 사적을 오늘도 전해주는 길림육문중학교》를 자주 읽어봅니다. 생각하면 영광의 땅에 살고있는 긍지감으로 가슴뿌듯해지고 어버이수령님, 경애하는 원수님사랑을 직접 받아안은 저는 이 세상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이 세상 비할데 없는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기쁨과 영광을 힘으로 바꾸어 조국의 강성변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모든 힘 다 바치며 영광의 땅 길림에서 영예를 계속 빛내일것입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질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으면서 우리들이 항상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즐겨읽는 《통일신보》 편집사업에서 더욱더 큰 성과와 통일신보편집국 모든 동지들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 1월 1일 길림에서 황진생

# 병진로선 - 최상의 안보, 최상의 재부

이것은 북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 해야 할것이다.

공화국이 핵을 쥐어서 얼마나 안전해졌는가. 공화국이 맞선 상대는 세계적으로 핵무기가 제일 많은 미국이다. 최근 오바마의 《북조선봉쇄》 망언이 보여주는것처럼 미국은 대조선압살의 오랜 기도를 어떻게 하나 실현하지 못해 최후말약을 하고있다. 오는 3월초에 남조선에서 끝날내 벌리려고 하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도 핵과 군사적힘으로 공화국

지난 세기 미국의 강요한 조선전쟁시기 우리 겨레가 미국의 핵무기때문에 얼마나 위협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였는가. 원자탄을 사용한다는 그 공갈탄을 사용한다는 그 공갈탄을 내려가 수많은 홀어진 가족, 친척들이 생겨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전후 수십년간 일방적으로 미국의 핵위협만 받아오던 공화국이 이제는 자기 손에 정의의 핵을 틀어쥐게 됨으로써 국가와 겨

라이나는 서방의 내정간섭으로 내전이 일어나고 나라가 분렬될 위험까지 초래되고있으나 자위의 핵을 억척같이 틀어쥔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 자기 식의 락원을 힘차게 건설해가고있다.

적대세력이 공화국의 핵문제를 가지고 그토록 안절부절 못하면서 핵을 어떻게 하나 폐기시키려고 북담소동을 피우는것은 역설적으로 그 핵무기가 미국이 허물려고 하는

의 침공을 언제 당할지 모를 위기에 시달린다면 창조와 건설도 마음놓고 할수 없다.

핵이 국가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주고있기에 지금 공화국의 군민은 재래식전쟁이든, 핵전쟁이든 미국과의 그 어떤 전쟁에도 다 준비가 되어있다고 소리치면서 자신만만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쏟고있다.

핵을 중추로 하는 국방력강화에 지난 시기보다

고 세로지구의 거대한 등판에는 대규모축산기지가 꾸려지고있어 모두를 놀라게 하고있다.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곳곳에 일떠서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되는 고급주류들과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마식펑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아이들의 락원 평양육아원과 육육원만 보아도 공화국의 경제발전속도와 변화의 실상을 가히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남조선집권자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라고 말하였는데 공화국은 그러한 《발전》을 결코 원치 않는다.

왜냐면 서방식발전이란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듯이 사회적부가가 늘어날수 없는 소수의 대규모기업들과 특권계층에게 차리게 되기때문이다. 가진자는 더 배를 불리워도 없는자는 더욱 가난에 쪼들리는것이 서방식발전이다. 세계적으로 1%의 가진자들을 반대하여 99%의 돈없는 사람들이 벌리는 항의시위의 물결이 세계를 휩쓸고있는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런데서는 남조선도 다름바 없다.

공화국이 지향하는 발전은 사회적부의 증가가 인민들에게 그대로 차례



# 미국을 기다리는 운명

미국의 최후멸망을 알리는 처량한 장송곡은 워싱턴에서 울리게 될 것이다.

미국의 건국력사는 기껏해서 239년이다.

역사는 짧지만 세계적으로 전쟁을 제일 많이 치른 나라가 미국이다. 인디언의 해골 위에 나라를 세운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전까지만 해도 무려 110여차례의 대소침략전쟁과 8900여차례의 군사적간섭을 감행하였다. 미국의 역사는 곧 피비린 침략과 전쟁, 살인의 역사였다.

전쟁을 제일 즐겨하고 걸핏하면 무력을 휘둘러 싸움을 걸었지만 기이하게도 미국본토에는 지금까지 포탄 한발 떨어지지 않았다. 미국땅에 포탄이 날아든것은 딱 한번, 2차대전 시기 일본의 기습적인 진주만 공격이 그것이다. 그러나 적대 본토에는 포탄이 날아들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놓고 다른 나라들을 치고 전쟁을 쾌락으로 여겨온 미국이다.

역사상 가장 안전했고 전쟁을 다른 나라무대들에서 벌여지는 한자 《불꽃놀이》쯤으로 여겨온 그 미국에 대항하여 지금 미본토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지구상 미국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반미의 나라 조선이다.

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최근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전체주의》요 뭐 요 하면서 결코 듣고 우리 인민이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그 무슨 《변화》의 방법으로 붕괴시킬것이라고 공공연히 쫓아대는 미친개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용의가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미제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해줄수 있으며 상용무력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비롯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 되어있다고 선언하시었다고 한다. 그러시면서 미제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율, 쓰디쓴 참패를 우리

와의 전쟁을 통하여 저들의 땅 어귀에서 맛보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적대세력들은 이에 대해 《위협》이니 뭐니 하지만 조선에서 울려나온 이 핵폭탄같은 선언은 한갓 《위협적인 언사》가 아니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령도를 받는 선군조선의 단호한 결심이고 의지와 배짱의 산물이라고 본다.

조선은 지금 미국과의 세기를 이어오는 대결전을 총결산할 만만한 각오와 의지로 불타고 있다.

지난해말 내가 북을 방문하여 김일성광장에서 만났던 조선인민군 군관 김수길은 《이제 더이상 참을수 없다. 우리를 그토록 괴롭혀온 미국과는 끝까지 싸워 결판을 보아야 한다.》고 했고 평양화력발전소에서 반장으로 일한다는 김명성은 《승냥이미제와는 이제 한번 꼭 전쟁을 치르어야 한다. 악의 본거지를 통채로 불바다에 잠그어 우리 조선사람들의 본래와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였다.

조선에 자주 가보는 사람들은 이 나라 사람들의 가슴에 무엇이 끓고있는지를 차츰 헤아려보게 될것이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사무친 원한과 증오, 복수의 감정이다. 지금 참관의 줄을 잇고있는 신천박물관에서는 미국에 대한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하는 공화국 각 계층의 목소리가 매일같이 터져나오고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왜 미국을 《철천지원수》라고 부르며 그토록 증오하는것인가. 왜 미국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욱욕 버르고있는가.

선량한 조선인민은 역사상 미국에 돌맹이 하나 던진것이 없다. 그럼에도 미국은 《서

민》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수십년간 조선에 대한 침략의 역사를 기록하여왔다. 조선인민에게 한차례의 참혹한 전쟁의 재난도 들켜왔다. 세기가 바뀌어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제재와 군사적위협, 심리모략전에 매달리다 못해 《붕괴》야망을 로폭적으로 드러내며 압살의 광기를 부리고있다.

이에 참고참아온 조선인민의 증오의 분화구가 터진것이다. 미국에 대한 복수와 징벌의 감정이 총폭발하고있는것이다. 조선의 군대는 이미 미국과의 피할수 없는 전쟁을 각오하고 오래전부터 그 준비를 완전무결하게 갖추어온것으로 알고있다. 조선의 지도부는 미국과의 최종승부를 가르게 될 그 결심을 이미 굳힌것 같다. 김정은령도자의 추상같은 선언에 그것이 다 썩여있다.

문제는 미국이 몰아오고있는 퍼할수 없는 전쟁의 결말이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것이다.

조선은 최후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전쟁의 승리는 첫째로 사상과 의지가 결정한다. 그것은 지난 조선전쟁이 여실히 증명해주었다. 조선의 군대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사상과 의지의 강군이다. 최고사령관과 전군의 장령, 병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있고 일단 최고사령관이 명령만 내리면 바다도 단숨에 메우고 적진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고야마는것이 인민군대의 단호하고 한다면 하는 배

짱과 용맹의 기질이다.

이런 사상의 강군을 돈에 팔려 군복을 입고있고 나보다라도 저 하나의 목숨을 더 중히 여기는 군대, 온갖 부정부패, 성폭력이 만연해있는 미국군대가 과연 대적할수 있겠는가. 이제 벌어지게 될 새로운 조선전쟁을 상상만 해봐도 미군에게는 이전 발칸전쟁, 《사막의 폭풍작전》과는 너무도 달랐던 지난 조선전쟁이 악몽처럼 떠오를것이다.

전쟁의 승리는 전략과 전술이 결정한다.

아무리 군인수가 많고 잘 무장된 군대라 해도 전략과 전술에서 모자라면 이길수가 없다.

조선은 미국과 달리 현대전과 유격전에 다같이 준비된 나라이다. 특수전에서도 조선인민군의 위력은 세상에 잘 알려져있다.

특히 주목할것은 조선의 젊으신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령도자의 군사적지략이 상상이상이라는것이다. 최근 공화국에서 벌어지고있는 각종 어마어마한 군사훈련, 타격훈련을 직접 조직지도하고 훈련의 우결함, 개선방향을 그 자리에서 가장 정확히 가르쳐주고계시는것만 봐도 그것을 알수 있다.

지난 조선전쟁때에도 미국은 대통령을 트루먼에서 아이젠하워로 바꾸고 극동군사령관, 8군사령관을 련이어 갈아대면서도, 서방의 군사가들의 머리를 모두 짜내여서도 조선의 김일성최고사령관의 령할수 다한 전법앞에 물리고 당하여 종당에는 패전의 회기를 들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이 그처럼 요란스레 광고했던 《군사적우세》가 전쟁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조선의 새로운 지략과 전법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리라고 당시 그 어느 미군장성인들 예상이나 했겠는가.

령장의 담력과 령군술을 그대로 이어받으시여 각종 전투, 국부전쟁, 전면전쟁의 수행방안은 물론 미국본토라격안까지 지도해오신 김정은령도자의 군사지략앞에 총 한번 제대로 봐보지 못한 오바마가 과연 승전고를 부를수 있겠는가.

전쟁의 승리는 무장장비와도 떼어놓고 말할수 없다. 미국은 저들의 무장장비를 세상에 자랑하지만 공화국의 무장장비도 만만치 않다. 나는 언젠가 아담한 숲속에 자리잡은 공화국의 무장장비관을 돌아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별의별 최신식무장장비가 다 있었다. 령토도 작고 인구도 그리 많지 않은 조선에서 언제 이 많은 현대적무기를 만들어내었는지 그에 깃들었을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하 많은 로고를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왔다.

무장장비관에 전시된 군사장비들은 물론 공개된것에 한한 것일것이다. 그밖에 아직 세상이 다는 모르는 위력한 타격수단, 방어수단으로 되는 최첨단무장장비들이 그 얼마일지는 누구도 알수 없는 일이다. 더우기 조선은 세계에 몇 안되는 핵보유국이다. 이제는 미국도 그것을 인정한다. 미국본토에도 핵탄을 날릴수 있는 위력적인 운반수단들까지 다 갖추었다는것이 서방을 비롯한 많은 군사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지난 25일 미국무부 북조선담당 관출신인 조엘 윌트 존스훈스 대학 초빙연구원도 《북조선이 현재의 핵개발추세대로 나

간다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수 있다. 특히 미국본토까지 다달을수 있는 이동식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20~30개 확보할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는 주장을 해 세계에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미국이 핵전쟁을 일으키면 그 본토까지도 핵불바다에 잠그겠다고 조선이 큰소리치는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다.

이제는 미국의 선택과 결전의 시각만이 남았다.

미국이 몰아오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불구름이 남조선에 뒤덮고 그 사소한 불찌라도 공화국의 령내에 튀긴다면 조선은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것이라는 것을 이미 루차 경고하였다. 조선이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과 벌리게 될 최후의 전쟁은 과거처럼 조선반도의 경내에만 국한되지 않을것이다. 조선반도는 물론 미군과 그 기지가 도사리고있는 태평양의 무변광대한 수역과 지역이 전장으로 화하고 대양건너 미국본토도 전란의 한복판으로 될것이다.

미국은 국가형성 이래 처음으로 자기 땅에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치르게 될것이다. 미국에게는 그것이 최대의 악몽이다.

미국은 자그마한 무인기에도 온 나라가 소동을 벌리고 공포에 떠다. 전쟁을 제일 많이 치른 나라이면서도 전쟁에 준비 안된 그러한 미국의 령토에 핵미사일들이 우박처럼 날아든다면...

20세기의 조선전쟁이 미국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었다면 21세기에 미국에 의해 강요될 조선전쟁은 그들의 최후멸망을 알리는 가장 처량한 장송곡으로 막을 내릴것이라는것이 해외에서 조미대결의 마지막싸움판을 지켜보는 나의 견해이고 확신이다.

재일군사평론가 김우식

이 땅의 0.0001mm라도 침범한다면



## 우크라이나사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국제문제

지난 2월 12일 벨라루시의 수도 민스크에서 는 우크라이나와 로씨야, 도이칠란드, 프랑스의 지도자들이 모여 10여시간의 회담끝에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합의를 이룩하였다. 이를 두고 분석가들은 낙관적인 태도로 합의를 대하는것은 《우둔한》 짓이라고 평하고있다.

말하자면 지난 2014년 9월 민스크에서 이룩된 합의가 분쟁쌍방사이의 호상신뢰가 부족하고 또 여기에 개입된 나라들이 자기의 리익만을 추구한 것으로 하여 인차 빈종이장으로 되였기때문에 《두번째로 체결된 민스크 합의》에 대해서도 리성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는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세워진 친로씨야적인 정권이 무너지고 친서방적인 정권이 세워졌다.

그때로부터 지난 1년반 동안 우크라이나사태는 가두시위로부터 지속적 인 무장충돌로 점차 발전하였다. 사람들은 지난해 9월의 민스크회담결과가 사태를 《중식》시켰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지만 평화협정은 빈종이장으로 남았으며 우크라이나동부

는 오늘까지도 전란속에 서 몸부림치고있다.

우크라이나사태는 지난 1년동안 지속되었지만 미국이 주도한 로씨야에 대한 여러차례의 《경제제재》와 《교립정책》은 사태를 호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로씨야와 서방사이의 대결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다.

우크라이나위기가 갈수록 격화되면서 유럽동맹은 로씨야와 서방사이의 대결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으며 유럽안전정세도 현재 커다란 위협을 받고있다. 또한 로씨야와 유럽동맹사이의 경제관계가 복잡해지고있다. 도이칠란드에만도 로씨야에 투자한 기업이 6000개에 달한다. 수차에 걸치는 제재와 보복조치 그리고 불안정한 외부환경때문에 유럽 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받고있다.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우크라이나주변국들의 회담이 여러차례 진행되고 여기에서는 정치적수단을 통해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울려나왔다. 결과 지난해 9월 평화합의가 이룩되었지만 각자의 리해관계로 파탄되고 이번엔 또다시 평화합의가 이룩된것이다.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문제는 대서양건너편에서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있으며 심지어 《불는

불에 키질》하려 하고있다고 보고있는것이다. 불안한 뜰에서 연기가 나올리 만무하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얼마전에 있는 문헌안전회의에서 미국부대통령 바 이덴은 또다시 《교립》과 《경제손실》로 로씨야를 위협하는 한편 미국이 우크라이나정부를 계속 지원할것이라고 공약하였다. 이 기간에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 주겠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졌다. 1월말 미재무장관 제이크 부루는 끼에브를 방문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우크라이나에 10억 US\$의 차관을 제공할것이라고 말하였다. 2월초 미국대서양위원회, 브루킹스연구소,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는 미국정부가 앞으로 3년동안 우크라이나정부에 장갑차와 반땅크미사일, 무인정찰기, 반항공체계를 포함하여 30억 US\$의 《비치사성무기》와 치사성방어무기》를 제공 할것을 호소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국무장관 케리는 2월 5일 끼에브에서 오바마가 현재 국방 지원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크라이나사태를 해결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

은 불에 키질하는격으로 되고있다.

따지고보면 우크라이나사태의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한 TV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난해 우크라이나정권교체에 참가하였다고 말함으로써 우크라이나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는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더욱더 확대되고있는 우크라이나전란에 대해 유럽은 몹시 조급해하고있는 반면에 《뿔아저씨》는 로씨야와 서방사이의 대립의 전연에서 지칠대로 지친 유럽동맹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있다. 우크라이나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함으로써 미국은 혼란에 빠진 중동에 대처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부귀하는데 보다 큰 정력을 쏟아부을수 있게 되었으며 유럽동반자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대서양항단관계에서 주도권을 쥐었다는 만족감을 가지게 되었다. 우크라이나사태는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그가 실사 동맹자이든 누구이든 서슴없이 제물로 삼는 미국의 행위와 함께 힘이 없으면 나라와 민족을 제대로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하나와 같이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웅철



# 남조선의 《보안법》은 희세의 인권말살악법이다

## 남 조선 인권 대책 협회 조사 통보 발표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지금 남조선당국이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통일진보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보안법》을 개악하는 놀음에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보안법》의 파쑈적, 반인권적진상과 역대 괴뢰패당이 이 악법을 휘두르며 감행해 온 치떨리는 인권유린말살범죄들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21일 조사통보를 발표하였다.

《보안법》의 파쑈적, 반인권적진상과 역대 괴뢰패당이 이 악법을 휘두르며 감행해 온 치떨리는 인권유린말살범죄들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21일 조사통보를 발표하였다.

《보안법》의 파쑈적, 반인권적진상과 역대 괴뢰패당이 이 악법을 휘두르며 감행해 온 치떨리는 인권유린말살범죄들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21일 조사통보를 발표하였다.

《보안법》의 파쑈적, 반인권적진상과 역대 괴뢰패당이 이 악법을 휘두르며 감행해 온 치떨리는 인권유린말살범죄들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21일 조사통보를 발표하였다.

### 1. 전대미문의 파쑈적 인권말살악법

조사통보는 《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리승만역도가 친미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진보인사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조작한것으로서 세계법제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한 반인권적독소조항들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먼저 《보안법》은 제국주의식민지독압통치수법을 그대로 본딴 가장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파쑈악법이다.

《보안법》은 조선을 강점한 일제가 식민지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데 적용하였던 《치안유지법》을 모방한것이다.

1925년 4월 일제가 자국내 공산주의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제정한 《치안유지법》은 일본법률사상 악명높은 법으로서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조직 및 가입, 결사목적실행에 대한 협의, 선동 등에 대해 사형에 이르기까지 처벌하게 되어있다.

《보안법》은 표현만 바꾸어놓았을뿐 제정목적이나 적용범위, 대상, 형량 등에 있어서 《치안유지법》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조사통보는 또한 《보안법》은 해방후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국이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위해 괴뢰도당을 내세워 강압적으로 조작한 악법이고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유린말살하는 반민주주의적이며 반인륜적인 악법이라고 지적하였다.

《보안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법적명분》을 걸고 사람들의 초보적인 권리를 무제한하게 침해할수 있게 되어있다고 하면서 조사통보는 《보안법》은 형량에 있어서도 다른 법들과 대비할수 없이 가혹한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보안법》의 반인권적, 반인륜적성격은 또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악법이라는데 있다.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과 해외동포조직들을 《반국가단체》로 규제하고 철두철미 동족을 적대시키고있다.

《보안법》의 조항들에는 《반국가단체》, 《반국가단체구성원》 등 동족을 적대시하는 표현들이 라렬되어있으며 지어 우리 공화국에 대해 《적국》이라고까지 표기되어 있다.

이것이 남조선 각계층의 린북통일기운을 거세말살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보안법》은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 대

화도 악랄하게 가로막고있다. 북과 남사이의 래왕과 접촉, 대화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서뿐 아니라 인권적, 인륜적견지에서 보아도 합법적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5조 1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

### 2. 《보안법》에 의해 감행된 치떨리는 인권유린만행

조사통보는 남조선당국이 력사적으로 악명높은 《보안법》을 휘둘러 감행한 파쑈적만행은 반인륜적, 반인권적범죄의 극치를 이루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리승만괴뢰도당은 《좌익세력을 철저히 제거》하고 《공산세력의 침투》를 막는다고 하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통일애국인사들과 민주세력들을 야수적으로 검거, 투옥하고 대량학살하였다.

유엔총회 제5차회의에 제출되었던 미제의 어용도구인 《유엔조선위원회》의 공식보고에 의하더라도 《보안법》조각이후 1949년 한해동안에만도 11만 8 000명의 남조선인민들이 체포, 투옥되고 그해 9~10월에는 132개의 합법적정당, 사회단체들이 강제해산되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과 《보안법》에 의해 무려 113만여명에 달하는 민주인사들과 그들의 가족, 친척들이 집단학살당하였다.

전후에는 남조선의 진보당이 내놓은 평화통일방안이 《국시》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진보당자체를 불법화하였으며 1959년 7월에 당수인 조봉암을 사형에 처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보안법》에 의한 인권유린만행은 박정희 《유신》 파쑈독재 《정권》시기에 와서 극도에 이르렀다.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이 1964년과 1974년 두차례에 걸쳐 굴욕적인 남조선일본 《회담》 반대, 《유신헌법》철폐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재야민주세력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한 인민혁명당사건, 1968년 김종래를 비롯한 통일애국인사들을 학살한 통일혁명당사건, 1967년 작곡가 윤이상을 비롯하여 유럽지역에서 활동하던 예술인, 지식인, 류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 랍치, 체포, 유죄판결한 동백림사건 등의 인권유린범죄만행들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오죽하면 당시 남조선사람

력을 받은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8조 1항), 《금품 기타 재산상의 리익을 제공하거나 잡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며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9조 1항) 등의 독소조항들로 북남사이의 래왕과 접촉, 대화에 제동을 걸고있다.

《보안법》에 의해 감행된 치떨리는 인권유린만행

들이 《보안법》을 사소한 룡단, 취중의 발언조차도 《리적행위》, 《간첩행위》로 몰아 즉결심판에 넘기는 최악의 법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을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수 없는 암흑사회라고 단죄하였겠는가.

파쑈교형리들에 의해 잔인하게 학살되고 중세기적인 고문을 당한 《보안법》피해자들의 원한은 구천에 사무치고있다.

《밤낮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거나 몽둥이찌질, 손가락사이에 연필끼우기, 몽둥이를 다리사이에 끼우고 몽개는 고문을 당했다. 며칠동안 잠을 못자게 하고 흰 벽을 쳐다보게 하는 고문도 있었다. 물고문도 했다. 발가벗긴 몸을 나무사이에 묶어 대통령 매달리게 한 뒤 수건을 얼굴에 씌우고 주전자로 물을 부는것이였다. 숨이 막혀 몸부림치면 《너 군대에 있을 때 이복 갔다 왔지?》 하는것이였다. 견디다 못해 고개를 끄덕이면 물부기를 중단하고 진술서를 쓰라고 했다. 거부하면 또 물고문...》

이것은 1974년 민청학련사건 피해자였던 류인태의 증언이다.

《유신》독재자가 《보안법》에 걸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고문하고 학살했으면 당시 괴뢰중앙정보부의 남산지하실이라고 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친다.》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의 량심수들에 대한 사상전향강요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극악한 인권유린범죄이다.

아래의 증언은 광주교도소에서 감행된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교형리들의 야수적고문만행을 낱알이 고발하고 있다.

### 3. 《보안법》개악에 미쳐 날뛰는 파쑈독재광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집권이후 《보안법》이 더욱 살기를 풍기고있다고 하면서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하

고있다고 조사통보는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박근혜페당은 리명박역도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보안법》개악까지 로골적으로 추진하면서 파쑈적탄압에 미쳐날뛰고있다.

박근혜는 집권한 첫 시기부터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꾀변을 늘어놓으면서 김기춘, 황교안, 남재준과 같은 《유신》잔당들을 괴뢰청와대 비서실과 법무부, 정보원의 요직에 들여앉히고 구시대적인 파쑈독재통치에 매달리었다.

무엇보다도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정당, 단체, 인사들을 《보안법》에 걸어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박근혜페당은 집권첫해인 2013년 2월 민족의 대국상에 조의를 표시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로수희에 대한 파쑈공판놀음을 벌려놓고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의 형벌을 선고하는 야만적폭거를 감행하였다.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남조선교육계의 대표적진보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친북》활동의 앞장에 선 《중북의 심장》, 《내부의 적》이라고 하면서 합법적지위를 강제로 박탈하였는가 하면 12월에는 5 000여명의 경찰장관들을 내몰아 민주로총본부를 기습하고 부위원장장을 비롯한 130여명을 연행하는 폭압소동을 일으켰다.

박근혜페당은 남조선에서 합법적인 진보정당으로 활동해온 통합진보당을 탄압하기 위해 모략적인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백주에 이 당 소속 《국회》의원을 《보안법》에 걸어 구속하는 파쑈적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9일 괴뢰사법당국을 내세워 통합진보당을 《중북정당》으로 몰아 강제해산하고는 그것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력사적결정》으로 찬미하는 추태까지 부리었다.

올해 정초에는 범조계의 진보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수사의 칼을 들이댔으므로 사실상 《보안법》을 휘둘러 진보세력들을 전면 말살하려는 흉악한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괴뢰페당은 평화적시위, 집회들도 《친북좌익세력들의 정부전복작전》으로 매도하면서 진보단체 인사들을 고배후조종자로 몰아 다치게내로 체포, 구속하였으며 참가자들을 《체제전복세력》이라고 몰아대며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였다.

박근혜페당은 《보안법》을 적용하여 언론, 출판, 의사표현의 자유도 여지없이 유린말살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25일 《박근혜정부의 명예훼손고발사태발표회》에 참가한 한 작가는 《리명박때에는 가시나무가 둘러쳐져있어 가시에 찔리는 느낌을 가졌는데 박근혜정권에 들어서서는 철조망에 2중3중으로 갇혀있는것 같은 답답한 감을 느낀다.》고 울분을 터치었다. 오늘 남조선에는 《정권》을 비호하거나 동족을 모해하

는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정권》을 시비하거나 대결정책을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올해 정초에 벌어진 판이한 두가지 사건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1월 19일 미국의 《인권재단》 펠저지들과 남조선의 인간쓰레기들이 군사분계선일대에 도적고양이처럼 기여나와 우리를 악랄하게 혈투는 뼈라를 살포한데 대해 괴뢰페당은 그 무슨 《표현의 자유명역》이니,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인권》이니 하며 강제로 막을수 없다고 로골적으로 편역을 들었다.

그러나 공화국방문소감에 대한 순회강연에 나섰던 남조선의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과 재미동포력성 신은미에 대해서는 새해벽두부터 집권자까지 나서서 무슨 큰일이나 난것처럼 야단법석했으며 공안당국도 때를 만난듯이 일제히 폭압의 칼을 빼들고 그들을 박해하였다.

지난 1월 10일 신은미를 남조선에서 강제추방하였으며 14일에는 황선을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세월》호참사로 생때같은 자식을 잃고 통곡하며 몸부림쳐도 《북의 사족을 받은 중북좌파의 연극》으로 몰리우고 집권자에게 의문을 가지는 글을 사이트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징역과 재산몰수라는 형벌을 받아야 하며 반 《정부》 구호를 들고 침묵시위를 하였다 하여 탄압당해야 하는것이 바로 《보안법》과 같은 파쑈악법이 살판치는 남조선의 참혹한 현실이다.

제반 사실들은 《보안법》이야말로 력사적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유린해온 악법중의 악법이며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남조선은 세계최악의 인권말살지대로 남아있게 되고 언젠가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룰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하기에 오늘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국제사회계가 《보안법》을 철폐할것을 강하게 요구하고있으며 지어 미국에서도 인권적견지에서 볼 때 《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쑈악법을 폐지하기는커녕 더욱 개악하려고 미쳐날뛰는 박근혜페당이야말로 희세의 인권유린왕초, 파쑈독재광들이다.

이러한 인권범죄악당들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횡설수설하는것은 실로 가스롭기 그지없는 파렴치한 망동이다.

박근혜페당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보안법》을 지체없이 철폐하며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박근혜페당이 내외의 한결같은 비난과 요구에 등을 돌려대고 《보안법》개악과 파쑈적탄압에 계속 매달린다면은 민족과 전세계의 저주와 규탄속에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다.



# 민주와 통일에 대한 사형선고

지난 13일 남조선의 사법부는 인터넷신문인 《자주민보》에 대한 폐간결정을 내리었다.

《자주민보》로 말하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통일을 추구한다.》라는 리념 밑에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온 언론이다. 《자주민보》가 그 무슨 《중복》을 했다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고 북녘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한 언론활동을 한 것뿐이다.

어제는 남조선에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활동해왔던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이 최고량을 차더니 오늘은 정의의 목소리를 전하는 진보적인 인터넷신문 《자주민보》에 대한 폐간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통일애국세력, 진보민주세력의 정당하고 의로운 통일론의와 활동을 근원적으로 가로막고 그를 완전히 말살해치우기 위한 계획적인 파쇼탄압행위이다.

남조선의 역사갈피를 더듬어보면 언론에 대한 탄압은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강제폐간을 당한 언론사는 단 하나 민족일보사뿐이었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유신》독재자는 이른바 저들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민족일보》가 《북에 리익을 주었다.》는 당치않은 구실로 신문제작자들을 체포 구금하여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으며 신문사는 강제 폐간하였던 것이다.

《유신》독재자 박정희를 내놓고는 력대 남조선의 그 어느 집권자들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 언론사에 대한 폐간책동은 지금 《유신》의 후예인 현 집권자에 의하여 되풀이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유신》독재가 망령이 아니라 엄연한 실체로 부활하였음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의로운 언론활동을 벌려온 인터넷신문 《자주민보》에 대한 강제폐간결정은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 주고 있다.

자주, 민주,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관철하기 위하여 필봉을 들었던 《자주민보》의 폐간을 놓고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도 《어떻게 21세기에 언론을 폐간시킬 수 있는가. 전두환과 같은 살인(정권)도 언론통폐합이라는 고칼모자를 쓰고 언론통폐합에 나섰다.》,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폭거이다.》라고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남조선보수당국이 민족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자주, 평화통일을 전면 거부하고 있으며 그들이 바라보는 오직 하나 체제대결, 《흡수통일》야망뿐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불을 즐기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며 민심을 거역한자는 천벌을 받기 마련이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자주통일을 가로막고 동족대결, 체제대결을 추구하는 저들의 악정으로 하여 겨레의 분노가 용암이 되어 거세차게 사뭇쳐오르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러금

이러는 말만 해도 잡아가두던 《유신》독재가 부활하는 암흑사회로 만들어버렸다.

지금 남조선보수당국은 자주,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북남공동선언리행을 활동원칙으로 하는 범민련 남측본부, 6.15공동선언실천련대 등의 강제해산을 위한 법률제정에도 미쳐달라고 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개별적인 인사들을 《보안법》에 걸러 마구 탄압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남조선보수당국이 민족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자주, 평화통일을 전면 거부하고 있으며 그들이 바라보는 오직 하나 체제대결, 《흡수통일》야망뿐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불을 즐기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며 민심을 거역한자는 천벌을 받기 마련이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자주통일을 가로막고 동족대결, 체제대결을 추구하는 저들의 악정으로 하여 겨레의 분노가 용암이 되어 거세차게 사뭇쳐오르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러금

## 《엄마는 언제 오나요》

시민단체인 《희망정치연구포럼》의 대표 황선녀성이 자식들과 백주에 생리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로 말하면 평양에서 귀여운 딸을 낳은 것으로 하여 북의 인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통일운동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남편과 함께 통일을 바라는 마음에서 자식의 이름을 윤겨레라고 지었다.

그런 그가 남조선에서 구속된 리유가 기가 막히다.

이 녀성의 《구속령장 청구서》라는데는 그가 통일이야기 순회강연에서 북녘의 노래 《심장에 남는 사람》을 불렀으며 평양시민들이 손전화기를 사용하고 맛이 좋은 맥주 사용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구속리유로 밝혀져 있다.

또한 이 녀성이 평양방문시 실시 폐부로 체험한 뜨거운 동포애, 인간사랑의 정을 그대로 담은 글과 도서를 써냈는데 이것 역시 《리적표현물》이라는 것이다.

이 모든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보안법》이 무엇을 추구하는 《법》인가는 너무나 명명백백하다. 《보안법》은 《국가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명분》아래 남조선인민들의 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가로막고 초보적인 권리를 무참하게 유린하고 있다.

7조(찬양, 고무죄)만 놓고 보더라도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따라 어떤 식으로 람용되어도 무방하게 되어 있다.

특히 《리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나 도서 기타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운반, 배포, 판매 또는 취득한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한 7조 5항은 인권의 기본인 사상과良心, 표현의 자유를 엄중히 침해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보안법》이 규정한 《죄》이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보안법》은 공화국과 해외동포조직들을 《반국가단체》로 규제하고 동족을 적대시하고 있다.

《보안법》의 조항들에는 《반국가단체》, 《반국가단체구성원》 등 동족을 적대시하는 표현들이 라벨되어있으며 지어 공화국을 《적국》이라고 까지 표기하고 있다.

바로 이 악법에 의해 황선녀성과 그의 자식들만이 아닌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이 초보적인 인권마저 깎그리 짓밟히고 있으며 불행과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다. 여기에 6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오늘은 어머니를 철창속으로 끌어간 당국에 대한 원망에 차서 윤겨레의 자매는 찬바람부는 거리에서 오늘날도 피라게 절규하고 있다.

《엄마는 언제 오나요》 본사기자 현은경



**자주 통일 가르친 교사를 구속**

『붉은자유, 투쟁으로 찾았!』 『통일위해 미군철수해야!』 의식화, 민족정기가르친 것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죽음의 윤이상선생**

**정치범 47명 형집행정지**

내외여론, 급박한 정치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 공민권 회복 안되고 민주확립 없는 한 무의미

대한 소식을 실은 남조선신문사들에 자주통일을 가르친 교수들을 구속한다

## 이런 악법이 있어야 하는가!

세월이 흘러 모든것이 변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구나 파쇼의 악취배인 《보안법》은 그 악법으로 무참히 짓밟혀 피맺힌 한을 새긴 겨레의 상처는

그 《법》에 인권을 란도질당하고 진실이 철사에 묶여 《죄》로 매도 당했다

수십년세월 섬뜩한 파쇼의 그 칼날에 억울하게 숨진이들

헤어보라 그 얼마나 되는가를

파쇼의 그 《법》에 명줄을 꿰고

서식해온 역적의 무리들 그 누구나 그 법 아닌 《법》이 있어 아직도 민주는 꺾이운채로 눈 못 감은 령흔들 피젖은 가슴에 있고

오늘도 통일은 열망으로만 남아있 거니

말하라 겨레여 이 땅의 진리여 이런 악법이 정녕 있어야 하는가 이 《법》을 언제까지 두어야 하는가 끝장을 내야 할 《보안법》 민족의 준엄한 판결이 있어야 한다



## 만평 《원예사》



옛날옛적에 한 피물이 살았다고 한다. 그 피물은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 악마들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통방울눈으로는 사방 그 어디나 못 보는 것이 없었고 낮대야같은 귀로는 못 듣는 소리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벽에도 귀가 있다.》며 공포에 떨었고 혈육이 남이 되고 친구가 원수로 됐으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 이 피물은 식성도 굉장히 좋았다고 한다. 조금만 구미가 당겨도 큰것 작은것, 맛있는것 없는것 가림이 없이 하마

## 쌍쌍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같은 입으로 삼켜치우고 독사같은 이발로 물어뜯었다. 하여 사람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 피물에게 먹혀왔다. 이 피물이 남자를 녀자로, 녀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을 내놓고는 이 세상에서 못하는 일이 없다고 자랑할 정도로 악마들은 피물에게 온갖 재간을 다 배워주었다. 실지 이런 피물이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생각만 해봐도 끔찍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상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땅과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저 남조선에 《보안법》이라는 이런 피물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 장장 70년세월을 살아오면서 남산지하실과 같은 시커먼 배속에서 진보당사건, 인혁당사건 등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을 날조해내고 서술부른 독이 발로 수십만에 달하는 무고한 생명을 해쳤다. 바로 이 《보안법》에

의해 남녘겨레의 통일운동이 쓰러린 좌절을 겪었고 우리 민족의 통일시교 표가 그만큼 더더욱 지게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피물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 것은 민족의 수치이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철폐할것을 강력히 요구해내고있으며 세계 진보적단체들과 인사들도 21세기의 가장 극악한 악

법인 《보안법》을 당장 철폐하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의 악마와 다름없는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보안법》이라는 피물의 이발로 더 서술부르게 버리려 하고 있다. 악마에게는 선량한 사람들의 규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법이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고 력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있는 《보안법》이라는 피물을 한시바삐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신춘호



# 이채로운 윷놀이 풍경



윷놀이는 우리 겨레가 옛날부터 제일 즐겨한 민속놀이이다. 놀이방법이 다양하고 재미있는 좋은 오락으로서 윷가락과 윷말, 윷판 등 놀이도구가 간단하고 몇사람이건 짝만 맞으면 할수 있으며 또한 남녀로 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놀수 있다. 가족, 친척끼리 집안에 둘러앉아서 놀수도 있

며 혹은 널찍한 마당에 멍석을 펴고 그우에 윷판을 차려놓고 온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놀수도 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수업이 긴 할아버지와 흰머리 날리는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한테 어울려 동심이 되어 윷가락을 던지고 말을 전진시키는데 께를 썼으며 눈에 쌍심지를 켜고 승부를 겨루었다. 《윷진 애비같다.》는

말도 있듯이 때로는 머리 허연 사람이 젊은이한테 지고는 한번만 더 하면 다음에는 꼭 이길것만 같아 또 하자고 곤질기게 달라 붙는 광경이 펼쳐져 웃음 보를 터뜨리게도 한다. 야지에서 수십명이 모여 윷놀이를 할 때에는 그야말로 흥성거리었다. 윷놀이는 우리 겨레의 사랑속에 오랜 옛날부터 즐겨해온 재미있는 놀이

로서 던지는 기교도 중요 하지만 말을 잘 가게 하기 위해 머리를 쓰고 말판을 잘 살펴야 하는만큼 사고력을 발전시켜준다. 민족의 우수한 전통이 활짝 꽃피어나고있는 공화국에서 윷놀이풍경을 어디서나 볼수 있다. 설명절날 공화국인민들은 예술공연관람과 윷놀이, 장기놀이, 연떡우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와 체육경기도 하고 설음식을 즐기면서 명절을 뜻깊게 보내었다. 이날 평양시와 각 지방의 도시와 마을들, 기관, 기업소들에서 떠들썩한 윷음속에 윷놀이경기가 진행되었다. 평양시 중구역 교구동 33, 34인민반에서도 윷놀이경기로 흥성거렸다. 인민반장들인 조설영, 김선희는 윷놀이를 하면서 한바탕 웃고나면 흥취가 나면서 가정과 아파트에 기쁨과 화목, 우애와 단합이 두터워진다고 말한다. 본사기자

#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 총 통

평양민속공원 조선봉건왕조유물구획에는 이 시기의 과학기술발전과정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유물들이 전시되어있는데 그중에는 총통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세기에 흑색화약의 힘으로 쏘는 먼거리전투무기 즉 약불화살이나 총포의 발전 초기형태들을 총통이라고 불렀다. 총통은 전투형식이 육박격투전으로부터 먼거리전투에 발전하고 먼거리전투가 진지전, 지구전의 형태로 더 발전하여 이것이 심화되는 과정에 창조되었다. 우리나라 총통의 첫 형태로서 661년에 만들어 쓴 질러포, 1032년에 많이 만든 퇴동석포나 팔우노 등을 들수 있다. 100발의 불화살을 동시에 재웠다가 함께 쏘는 신기전기, 200~300발의 길죽한 흐름선형탄알을 동시에 재웠다가 함께 쏘는 총통기 등은 세계최초의 다련발사격무기로서 알려져있다.

총통이 두개 붙어있는 쌍혈총, 포신이 두개 붙어있는 쌍혈포, 탄알을 동시에 4, 8, 15개 재웠다가 함께 쏘는 4진총통, 8진총통 등도 우리 나라의 자랑으로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6세기말 임진조국전쟁시기 약불화살이나 총포의 발전 자체로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다. 총통(화약무기)을 많이 만들어 쓰고 빨리 발전시킨 나라에서는 레외없이 군사제도의 변혁과 화약무기에 대한 국가적인 규격화와 표준화를 실시하였다. 군사제도의 변혁 즉 군대안에서 화력병종의 독립화는 우리 나라에서

1104년에 실시되었으며 외국에서는 16~17세기에 유럽지역에서 먼저 실시되었다. 총통의 국가적인 규격화와 표준화는 우리 나라에서 1445년-1448년간에 실시되었으며 외국에서는 18세기 중엽부터 실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총통(화약무기)의 발전력사가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보다 오래나있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이렇듯 우리 나라의 총통은 력사가 매우 오래며 외래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큰 전과를 거두는데 적극 기여한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본사기자 고영숙



# 정월대보름날의 민족음식

◆ 마른나물반찬  
우리 조상들은 정월대보름날에 아홉가지 마른나물로 반찬을 만들어 먹었다. 평양의 자연과 경계, 문화와 력사자료들을 묶은 책인 《평양지》(1590년)에는 고추이나물, 고비나물, 구엽초나물, 고사리나물 등의 묶은 나물들을 《검정나물》이라고 하며 그것들을 정월대보름명절날 아침에 먹으면 그해에 앓지 않고 건강해진다고 적혀있다. ◆ 오퍩밥  
정월대보름날에는 오퍩밥을

◆ 옛  
정월대보름날에 단음식으로 옛을 달아먹었다. 옛은 흰쌀이나 찹쌀, 수수, 강냉이 등의 낱알과 감자, 농마가루 혹은 고구마, 무우, 호박으로도 만들었다. 옛은 꿀이나 사탕처럼 달지는 못하지만 구수한 맛과 근기가 있어 먹기 좋은 명절음식으로서 어른, 아이 할것없이 즐겨먹었다. 본사기자



◆ 지열에너지의 활용기술  
지열에너지의 근원은 지구내부의 우라늄, 토륨, 칼리움과 같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붕괴열과 지구내부물질의 열방출량에 있다. 지구에 네르기 활용기술은 크게 149°C이하의 지열수를 리용하는 직접 리용기술과 150°C이상의 지열류체(증기 및 지열수)를 리용하는 간접 리용기술로 나뉜다. 직접 리용기술은 화산 활동지대에서 자연스럽게 얻을수 있는 지열수를 리용하는 방법으로 주로 지역난방과 온실난방, 농산물 건조, 산업, 온천 등에 쓰인다. 또한 지열수를 리용하는 간접식발전을 통해 전기도 생산할수 있다. 150°C이상의 지열류체를 리용하는 방법은 보통 지열지대가 아닌 지역에서 지하까지 시추를 하여 지열에너지에 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땅에 2개의 구멍을 뚫고 한 구멍에 물을 주입하면 지하 깊은 곳에서 지열에 의해 물이 가열되어 수증기가 생긴다. 이 수증기가 다른 하나의 구멍을 통해 올라와 터빈을 돌려 발전기를 가동시킨다. 여러 나라들에서 고온성화산활동지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5km깊이까지 시추를 하여 전기를 생산하고있다. 장철수

# 사화 공민왕릉 (3)

《제군들의 수고를 천황께 해 주셨다. 이젠 좀 더 솔직하게 말해보자. 그래 12번이나 쫓겨난 까닭이 뭐가?》  
마루야마는 제법 미소까지 지어보였다.  
구노라와 다나카의 혈색 좋던 얼굴들이 이 방에 처음 들어섰을 때처럼 칙칙해졌다. 개성에 거주한 왜인족속들과 친일파들을 규합하여 공민왕릉에 기여했다가 모두매를 맞아 죽을번 했던 지긋지긋한 그날의 장면들이 생각나서였다.  
도무지 20여호밖에 안되는 정릉동마을이 12번씩이나 어린아이로부터 흰 수염의 로인네까지 몽둥이를 들고 돌맹이를 던지며 미친개를 때려잡듯 달려드는 모습은 취중에서도 간담을 서늘게 한다. 그네들의 《무지한》 몽둥이질엔 왜인들의 칼부림같은것은 별로 맥을 추지 못했다. 어디 그뿐인가. 백성

들이 도처의 길목들을 막고 도적을 잡듯 덤벼드니 부록송아지같은 마루야마가 간대도 일을 치지 못할것이다.  
키다리 구노라가 일부러 안경을 추스르는 군동작으로 대답을 피하자 하는수없이 다나카는 불이 부은대로 제가 대답하여야만 했다.  
《각하! 예도, 첫째로는 우리 힘이 결정적으로 부족했었고 둘째로 공민왕릉이 세계적인 걸작품이기에 견고한 요새라 불의에 일을 칠수가 없었소이다.》  
마루야마는 거치른 성격이 되살아나 갈구리에서 린광을 뿜었다.  
《무슨 놈의 우는소리인가? 우리 대일본제국은 이 지구라는 행성우에서 다섯손가락에 꼽히는 령강이다. 령강! 우리 벌써 청나라도, 아라사도 이기지 않은 별로 맥을 추지 못했다. 어디 그뿐인가. 백성의 큰 전쟁에서 우리의 황

군은 무적의 군대가 되었다. 올 7월엔 〈가즈라-라프트협약〉, 8월엔 제2차 〈일영동맹〉, 9월엔 아라사를 굴복시킨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받아들여서 우리 아시아의 맹주가 된것이다.  
이 서울복판엔 무적의 황군이 두개 사단이나 진주했다. 반도는 이렇게 우리의 것이 되었다.  
대일본제국의 경찰은 반도를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재정고문 메가파 다네네로상은 반도의 경제를 송두리채 삼켰다. 며칠전에 이또 히로부미추밀원장이 반도를 넘겨받을 천황폐하의 〈특과대사〉로 이 서울에 임성한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우리 일일천추로 조상들이 갈망해온 〈한일협상조약〉을 허수아비같은 광무황제(고종)에게 들이 먹일것이다.  
아직은 제군들만 알아두

라. 이제 수일내로 이 조약을 우리의 뜻대로 끝장을 볼것이다. 그런데도 우는소리를 할텐가?》  
마루야마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시데하라 못지 않게 장황설을 늘어놓은것이 만족했다. 보다는 이 반도를 제 혼자 다아는척 하는 시데하라의 면전에서 부하들을 쥐락펴락한것이 기뻐다.



사실 마루야마는 시데하라와 함께 이또 히로부미의 별실로 불리워가서 추궁과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조선의 문화재를 하루빨리 어떻게 하라는 밀령을 받았다.  
로회한 늙은이는 젊은

형기에 일치지 못하면 끝내 사람질을 할수 없을것이라고 마루야마의 귀에 못을 박았고 시데하라에게는 밤만 측내는 식객노릇을 할바에는 본토에 돌아가서 너네편과 함께 논김이나 매는것이 좋겠다고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것은 이번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부하들을 평가하겠다는 최후통첩

# 찬물로 발씻기

찬물로 발씻기는 쉽게 할수 있는 간단한 단련방법이면서도 효과가 좋으며 땀수마찰을 할수 없는 사람들이 널리 리용할수 있는 대중적인 단련방법이다.  
찬물에 단련되지 못한 사람인 경우 찬물로 발을 씻으면 감기에 걸릴수 있지만 이 방법을 계속하면 추위에 잘 순응하면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된다.  
찬물로 발씻기는 30°C정도의 물로 시작하여 1~2일후에 1°C씩 물온도를 낮추면서 하는것이 좋다. 대체로 사람들은 저녁

에 발씻기를 많이 한다. 저녁에 발을 찬물로 씻으면 막혀있던 땀구멍들이 열리고 피순환이 활발해지면서 피로를 푸는데 좋은 작용을 한다.  
찬물로 발씻기는 처음에 3~5분동안 하다가 점차 시간을 늘리고 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12~14°C의 물에서 10분까지 할수 있다.  
아침에 땀수마찰을 하고 저녁에 찬물로 발씻기를 하면 땀맛이 나고 추위에 힘입어 강해져 여러가지 병을 미리 막을수 있다. 본사기자